



통합 구현

대용량 서비스 레퍼런스 아키텍처 2



한국기술교육대학교
온라인평생교육원

◆ 학습내용 ◆

- > Business Layer
- > Persistent Layer

◆ 학습목표 ◆

- > Business Layer의 개요 및 요청 처리 방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.
- > Persistent Layer로 사용할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해 비교 및 설명할 수 있다.



Business Layer

1. Business Layer

1) 개요

Business Layer란

- 클라이언트로부터 요청을 받아 데이터베이스나 파일에서 데이터를 쓰거나 읽어 비즈니스 로직에 따라 처리하여 응답을 내보내는 계층



Business Layer

1. Business Layer

2) 동기 요청 처리

동기식 처리

- 일반적인 요청(Request) - 응답(Response) 형식의 처리로 응답이 올 때까지 클라이언트가 기다리고 있는 호출 형태

- 클라이언트가 요청
- 서버쪽의 비즈니스 컴포넌트가 요청 처리
- 요청에 대한 처리가 끝나면 클라이언트에 응답을 보냄



[동기 요청 처리 방식]



Business Layer

1. Business Layer

2) 동기 요청 처리

(1) 생산성의 문제

- 자바 플랫폼 이용한 REST API 개발 시 서버에 대한 초기 설정 시 숙련자라도 많은 시간이 소요됨 (스프링 REST 프레임워크, 스프링 프레임워크, myBatis/Hibernate, 톰캣/Jboss, Maven 스크립트)
- 스크립트기반 웹 서비스 플랫폼(python, Ruby on Rails, Node.js 등)을 이용하면 개발 시간이 단축되나 안정성이나 견고성 측면에서 자바 플랫폼보다 열세
- 자바 플랫폼의 경우 XA(eXtended Architecture) 규격으로 지원해 복잡한 트랜잭션 관리가 가능하고 여러 프레임워크의 조합으로 복잡한 비즈니스 로직 구현 가능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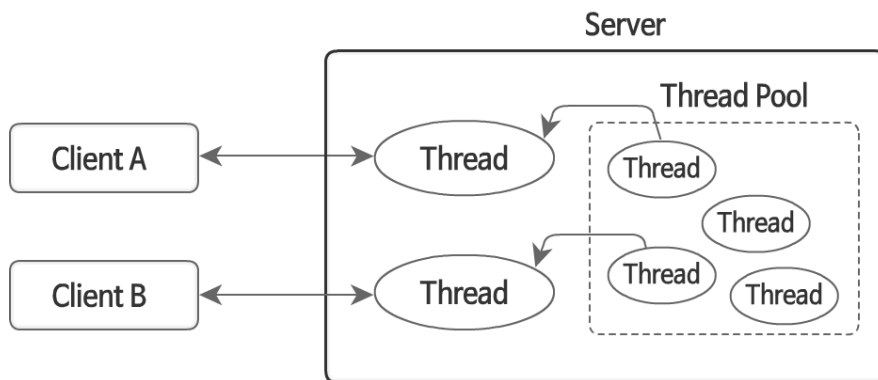
Business Layer

1. Business Layer

2) 동기 요청 처리

(2) 용량 문제

- JEE(Java Enterprise Edition)나 자바 스프링 기반 애플리케이션은 Thread Pool 구조 사용
 - Thread Pool : 클라이언트로부터 요청이 올 시 미리 만들어놓은 스레드 풀에서 스레드 꺼내 요청 처리 후, 다시 스레드 풀로 보낸 후 또 다른 요청이 오면 다시 꺼내 사용하는 구조
-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요청 수 = 스레드 풀 내부의 스레드 개수
 - 톰캣은 500개(최대 2000개) 정도의 스레드를 생성할 수 있음(물리적 한계)



[스레드 풀의 개념]

- I/O 효율 : I/O 작업(DB, 네트워크, 파일)이 있을 경우 I/O 호출 후 스레드는 CPU를 사용하지 않는 대기(wait) 상태로 아무 작업을 하지 않는 비효율성 발생
- 현대의 대용량 서비스는 수만 건의 요청을 동시에 처리(C10K 문제)해야 하기 때문에 근래에는 Node.js, Nginx같은 비동기 서버 사용하기도 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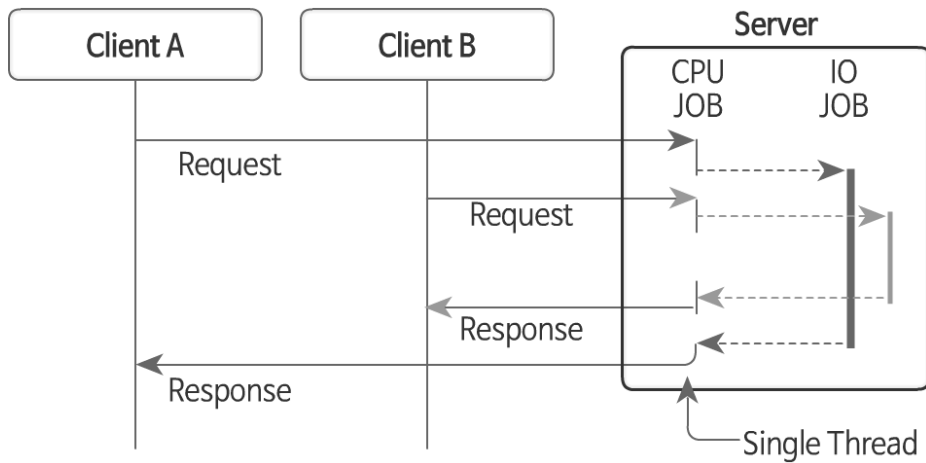


Business Layer

1. Business Layer

2) 동기 요청 처리

(2) 용량 문제



[비동기 서버의 요청 처리 방식]

- 하이브리드 플랫폼 활용 : 비즈니스 로직이 복잡한 서비스의 경우 중요 API는 자바로 개발하고 일반 API는 스크립트 언어 이용



Business Layer

1. Business Layer

2) 동기 요청 처리

(3) Shared Nothing 아키텍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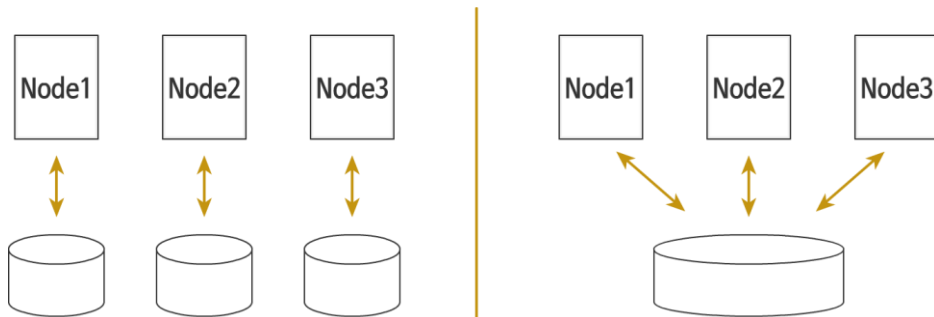
① 정의

Shared Nothing 아키텍처란?

- 분산 처리 시스템을 구성하는 여러 개의 노드가 서로 종속성을 가지지 않고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아키텍처

- 이론적으로 노드를 무제한으로 늘릴 수 있음
- 전체 시스템의 용량이 노드 수에 비례
- 특정 노드 장애가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주지 않음

② 개요



- 상태 정보(state)에 따라 노드 간 종속성 발생 가능

예시

EJB의 Stateful EJB 상태 정보, HTTP 세션 정보 등

- 비즈니스 계층이 아닌 다른 계층에서 상태 정보를 저장하여 서버들이 정보 공유

(4) 상태 정보 저장 방법

- 클라이언트에 상태 정보 저장하는 방법으로 쿠키사용
- 데이터베이스, 캐시, 데이터 그리드 계층, NFS, RDBMS 등을 이용하여 상태 정보 저장



Business Layer

1. Business Layer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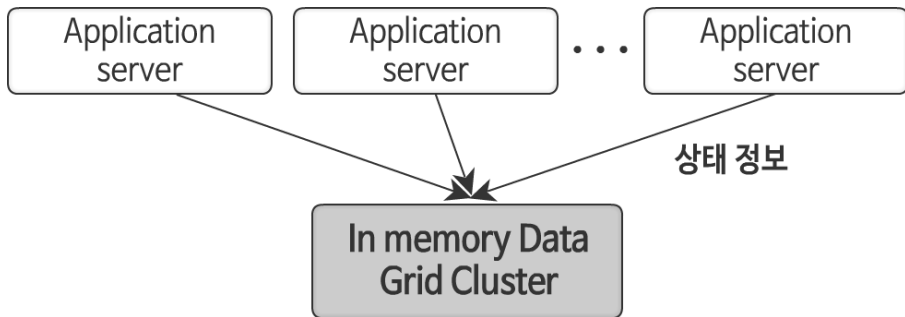
3) 상태 정보 저장소 (메모리 캐쉬)

(1) IMDG(In Memory Data Grid)

① 정의

IMDG(In Memory Data Grid)란?

- 여러 서버의 메모리를 연결해 수십 기가의 메모리 저장소 만들어놓고 애플리케이션 서버에서 접근해 사용 (메모리 클러스터)



[데이터 그리드를 이용한 공유 정보 처리]

② 용도

- 캐시, HTTP 세션, 사용자 로그인 정보 등의 상태 정보를 저장하여 공유



Business Layer

1. Business Layer

3) 상태 정보 저장소 (메모리 캐쉬)

(1) IMDG(In Memory Data Grid)

③ 특징

고가용성(High Availability)

- 서버 간 클러스터링으로 Fail Over(장애가 나지 않은 서버가 그 역할을 내려받음)가 가능해, 장애에 대해 고가용성을 가짐
 - 고가용성 : 서버와 네트워크, 프로그램 등의 정보 시스템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정상 운영이 가능한 성질 (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하여도 서비스의 성능은 감소하지만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)

확장성

- 서버를 추가해 전체 저장 용량 확장 가능

회복성

- 전체 서버가 다운되면 모든 데이터가 사라질 수 있음

④ 메모리 캐쉬로 활용하는 오픈 소스 솔루션으로 Memcache, Redis 등이 있음

- <https://memcached.org/>
- <http://redis.io/>



Business Layer

1. Business Layer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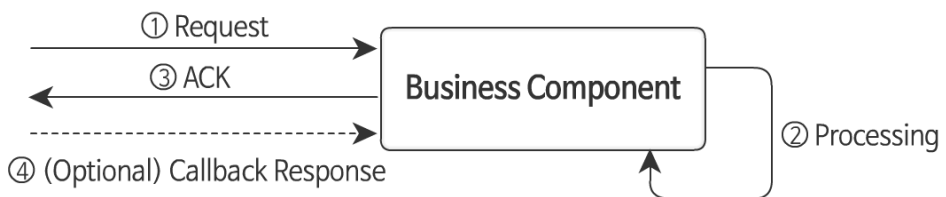
4) 비동기 요청 처리(메시지 큐)

(1) 비동기식 처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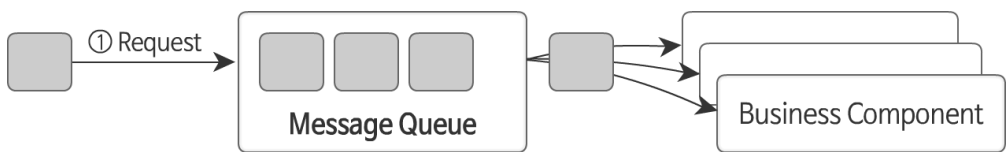
비동기식 처리란?

- 요청을 보낸 후 비즈니스 로직이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로직 진행

- 시간이 오래 걸리는 대규모 작업에 유리



- 비동기식 패턴 구현으로 메시지 큐 사용
 - 메시지 큐 : 들어온 요청을 쌓아놓는 임시 공간



[메시지 큐를 이용한 비동기 처리]



Business Layer

1. Business Layer

4) 비동기 요청 처리(메시지 큐)

(1) 비동기식 처리

Rabbit MQ

- 지원되는 기능과 모니터링 기능이 탁월 및 매우 편리

Zero MQ

- 새로운 메시지 처리 프레임워크나 미들웨어를 만들기에 좋지만 추가 개발 필요

Active MQ

- Apache 재단에서 관리
- 많은 기능과 프로토콜 지원하지만 사용이 복잡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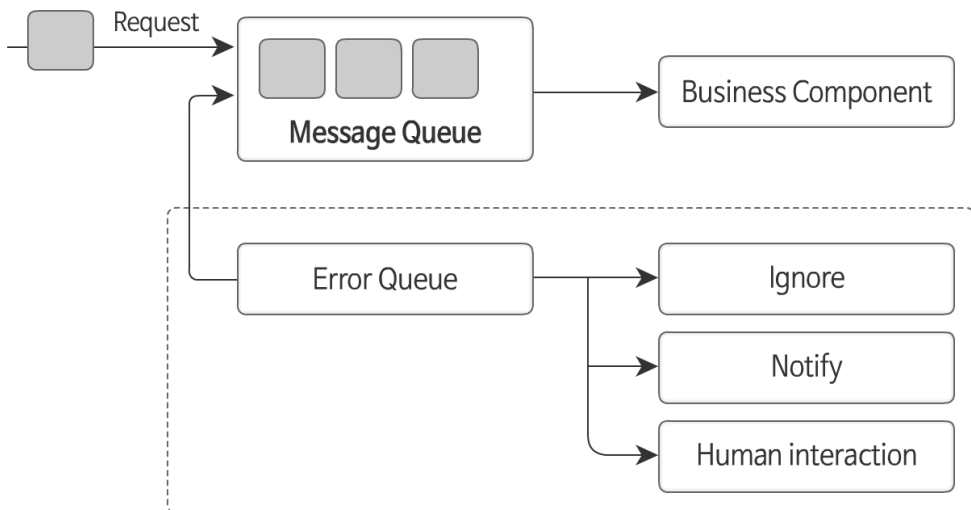


1. Business Layer

4) 비동기 요청 처리(메시지 큐)

(2) 에러 처리

- 비동기식 구현은 응답을 기다리지 않기 때문에 해당 요청이 제대로 처리되었는지 보장할 방법이 없음
- 에러 발생 시 에러 큐 라는 재처리용 큐로 전달해 에러 처리 방식 지정
 - 재처리(Retry) : 일시적 장애에 대해 재처리 진행. 대기 시간과 재처리 횟수 지정 필요
 - 무시(Ignore) : 에러가 난 메시지는 무시하고 삭제. 메시지 유실이 허용되는 경우에 사용
 - 알림(Notify) : 관리자에게 통보해 직접 에러에 대한 후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함
 - 사람이 처리(Human Interaction) : 관리자가 처리할 수 있는 UI 제공



[메시지 큐를 이용한 비동기 처리에서의 에러 처리 방식]



Business Layer

1. Business Layer

4) 비동기 요청 처리(메시지 큐)

(3) 비동기 메시지 패턴

① Fire & Forget 패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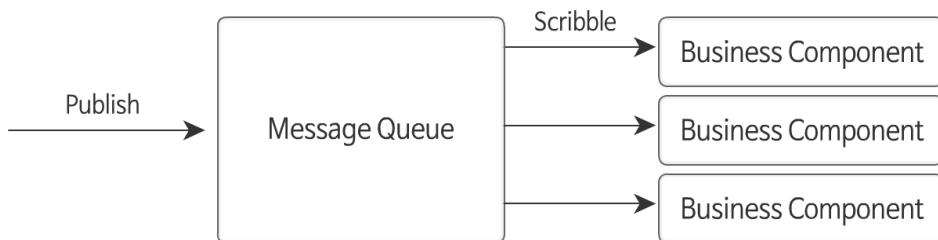
- 가장 일반적인 패턴
- 메시지 큐에 제대로 들어가면 메시지 처리 결과에 관계 없이 바로 반환



[Fire & Forget 패턴]

② Publish & Subscribe 패턴

- 메시지 큐에 구독자를 등록해, 1:N 관계의 비동기 처리 구현



[Publish & Subscribe 패턴]



Business Layer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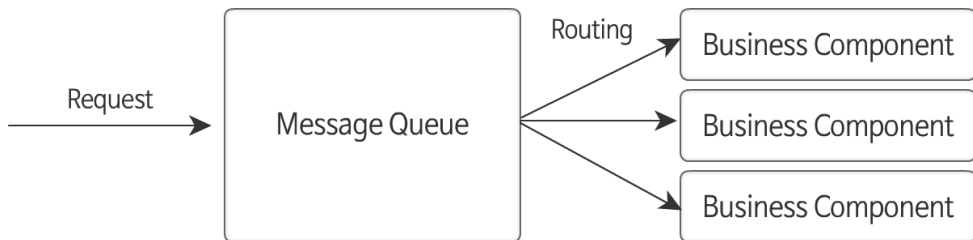
1. Business Layer

4) 비동기 요청 처리(메시지 큐)

(3) 비동기 메시지 패턴

③ Routing 패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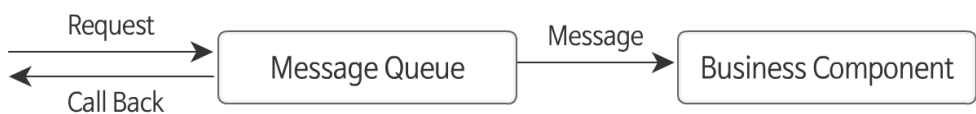
- 큐에 저장된 메시지를 조건에 따라 특정 비즈니스 컴포넌트로 라우팅



[Routing 패턴]

④ Call back 패턴

- 비즈니스 컴포넌트에서 처리가 끝나면 서버가 클라이언트에 처리가 끝났다는 응답과 처리 결과 메시지를 콜백으로 보냄



[Call Back 패턴]



Business Layer

1. Business Layer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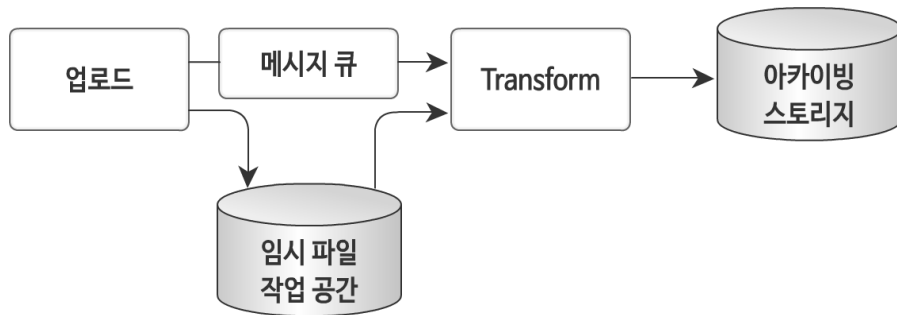
5) 임시 파일 작업 공간

(1) 정의

임시 파일 작업 공간이란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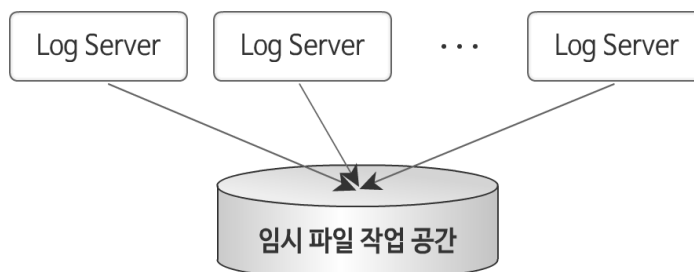
- 비동기 처리 및 분산 환경에서 추가로 필요한 컴포넌트로, 작업을 위해 임시로 파일을 저장하는 공간

- 직접 어플리케이션 서버에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(NFS) 등으로 마운트 될 수 있는 파일 시스템
- 동영상을 변환해서 아카이빙 스토리지에 저장
 - 아카이빙 스토리지에 저장하는 경우 비동기 절차가 길어질 수록 많은 파일 복사가 발생하게 됨
 - 임시 파일 작업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



[임시 파일 작업 공간 개념]

- 대규모 분산 환경에서는 분산 파일 스토리지를 사용하거나 공유 파일 시스템 사용



[공유 파일 시스템을 이용한 임시 파일 작업 공간]



1. Business Layer

6) 메시징 프로토콜

- 컴포넌트는 프로세스 단위로 분리되어 있어 통신을 하기 위해 리모트 호출 필요
- 근래에는 일반적으로 단순한 텍스트 기반 메시지 포맷을 사용하는 HTTP JSON 기반의 REST 방식을 많이 사용
 - HTTP는 Connectionless 프로토콜로 호출시마다 새로운 호출을 만들기 때문에 네트워크 오버로드가 큼
 - JSON은 일반적인 바이너리 파일에 비해 크기가 크고 파싱에 시간이 오래 소요
 - 가독성 및 사용성 측면에서 외부로 제공하는 API에 적합
- 내부 시스템 간의 호출에는 바이너리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것이 성능 및 용량 면에서 효율적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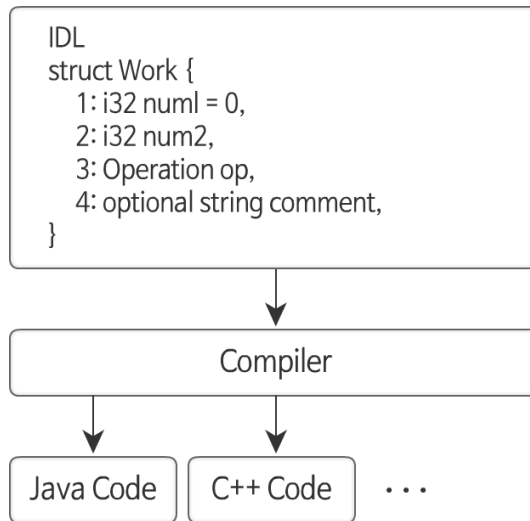
1. Business Layer

6) 메시징 프로토콜

(1) IDL(Interface Definition Language: 인터페이스 정의 언어)

① 메시지 포맷을 정의하고 전용 컴파일러를 통해 IDL로 정의된 메시지 포맷을 사용하고자 하는 언어에 맞는 코드로 변경

- 단점 : 데이터 포맷 변경에 대한 반영이 유연하지 않음 (재컴파일)
- 장점 : REST에 비해 성능이 매우 빠르고 용량이 작음





2. Persistent Layer

1) 개요

Persistent Layer란

- 처리할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

(1) 종류

- 관계형 데이터베이스(RDBMS)
- 파일 시스템
- LDAP(Lightweight Directory Access Protocol)
 - 인증을 위한 사용자 정보와 같이 개수가 많고 레코드별 용량이 적거나, 데이터 구조가 디렉터리 구조인 경우 사용
- NoSQL
 - 대용량의 데이터를 키(key)/값(value) 형태의 단순한 구조로 저장한 저장소로 성능 및 확장성에 중점



2. Persistent Layer

2) RDBMS

(1) 분류

① OLTP(On-Line Transaction Processing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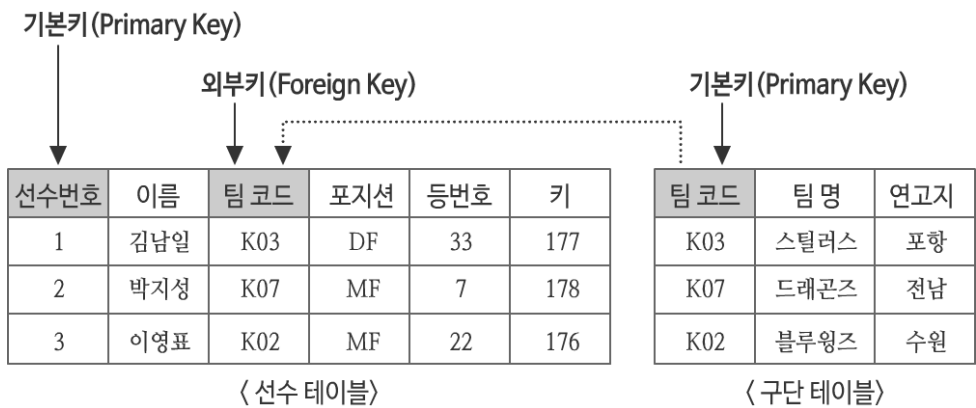
- 요청을 처리하는 트랜잭션 처리용 → Persistent Layer

② OLAP(On-Line Analytical Processing)

-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하고 리포팅 → Analysis Layer

- Persistent Layer의 RDBMS는 OLTP 성격의 데이터베이스

- 데이터베이스는 2차원 테이블 구조



[테이블의 정규화]

- RDBMS 설계 시 성능향상을 위해 고려할만한 기법
 - Query off Loading
 - Sharding



Persistent Layer

2. Persistent Layer

2) RDBMS

(2) Query off Loading

- DB 트랜잭션 비율



Query off Loading 이란

- Read 와 다른 트랜잭션을 분리해 DB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기법
- 구성
 - Master DB : 쓰기(Update)만 허용하며 해당 내용을 Staging DB로 복사
 - Staging DB : Master DB와 Slave DB 사이에 존재하며 Master DB에서 복제된 내용을 N개의 Slave DB로 복제하기 위한 중간 저장소
 - Slave DB : 읽기(Read)만 수행. N개 존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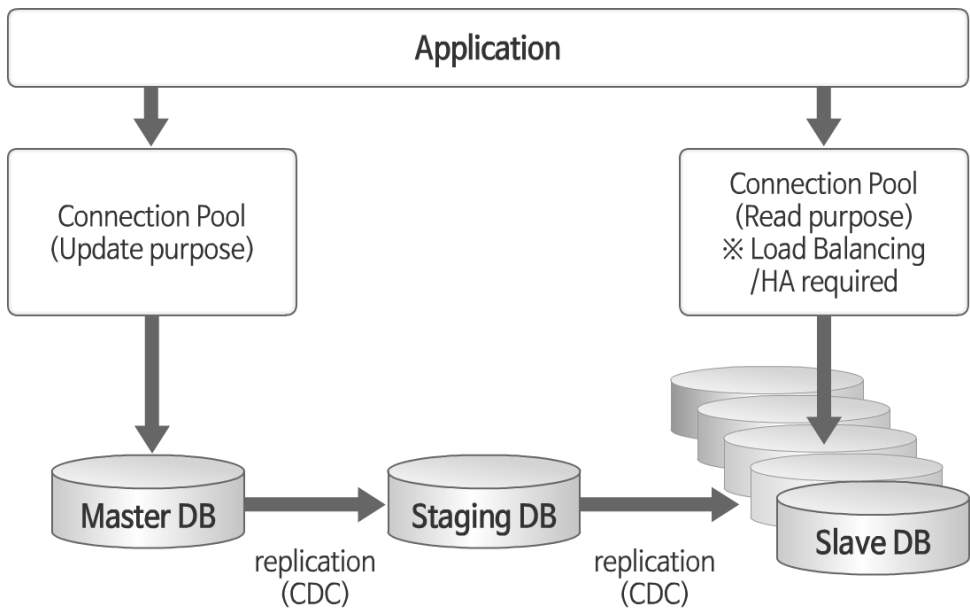


Persistent Layer

2. Persistent Layer

2) RDBMS

(2) Query off Loading



[Query off Loading의 개념]

- Connection Pool을 통해 어플리케이션에서 DB로 쓰기 및 읽기 로직을 분리해 각 DB로 전송
- Slave DB는 여러 개이므로, 모든 Slave DB에 대한 로드 밸런싱 필요하며, 높은 가용성(HA, High Availability)을 가지도록 기능을 제공해야 함
- CDC(Change Data Capture) : 각 DB간 복제
- 복구 용도로 저장해 두는 백로그를 읽어 각 DB에 Replay 하는 형식으로 진행



Persistent Layer

2. Persistent Layer

2) RDBMS

(3) Sharding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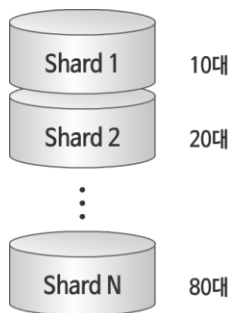
Sharding 이란

- 데이터베이스의 용량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기술로써 데이터를 여러 개의 데이터베이스에 분산 저장하는 방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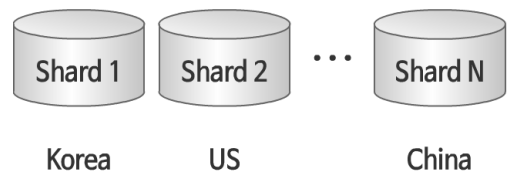
- Shard : 저장하는 각각의 데이터베이스

① 분류

- 수직적 샤딩 : 연속된 데이터에 대해 범위별로 데이터를 나누는 방법
(10대, 20대, 30대, ..., 90대)
- 수평적 샤딩 : Category에 따라 수평적으로 분리
(Korea, US, Japan, China, ...)



[수직적 샤딩]



[수평적 샤딩]



2. Persistent Layer

2) RDBMS

(3) Sharding

- 데이터 편중 현상에 대해 각 샤드 서버의 성능을 비대칭적으로 설계
- 데이터 편중 현상을 예측할 수 없는 경우 해시 방식(데이터를 모든 샤드에 걸쳐 분산 배치)을 사용
- 데이터의 분산저장으로 시스템의 전체 용량을 늘릴 수 있지만 애플리케이션의 복잡도가 올라가고 데이터가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는 등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한 후에 시스템 설계 반영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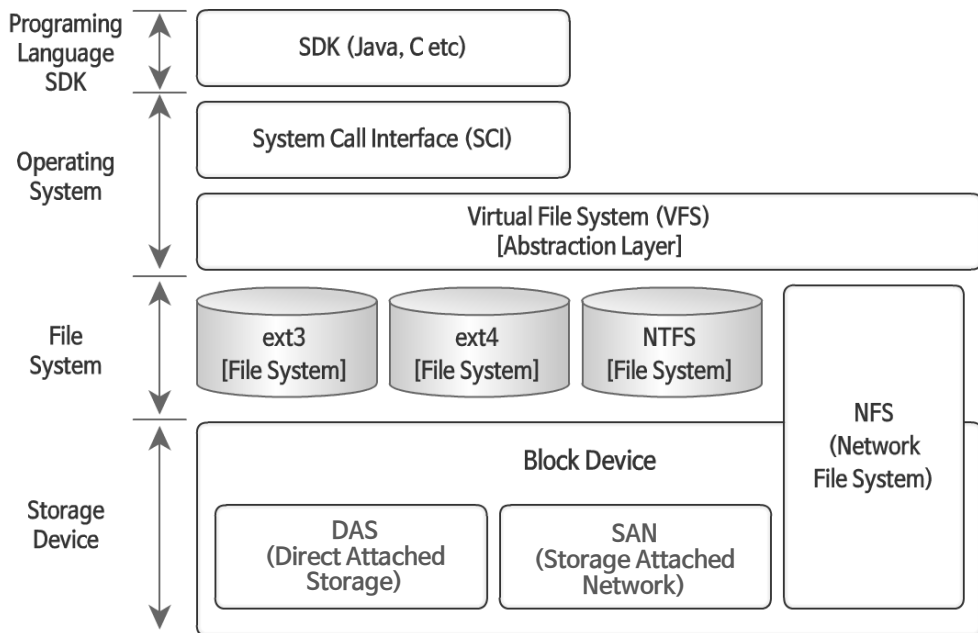
Persistent Layer

2. Persistent Layer

3) 파일 시스템

(1) 파일 시스템 스택

- ① SDK
- ② 운영체제 계층
- ③ 파일시스템
- ④ 스토리지 하드웨어 : DAS, SAN, NFS



[파일 시스템의 스택 구조]



2. Persistent Layer

3) 파일 시스템

SDK란?

-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지원하는 파일 시스템 접근용 API
- C의 fopen, JAVA의 java.io.* 등 라이브러리

운영체제 계층

- 다양한 파일 시스템을 같은 형태의 스토리지로 추상화
- 리눅스의 VFS(Virtual File System)

파일시스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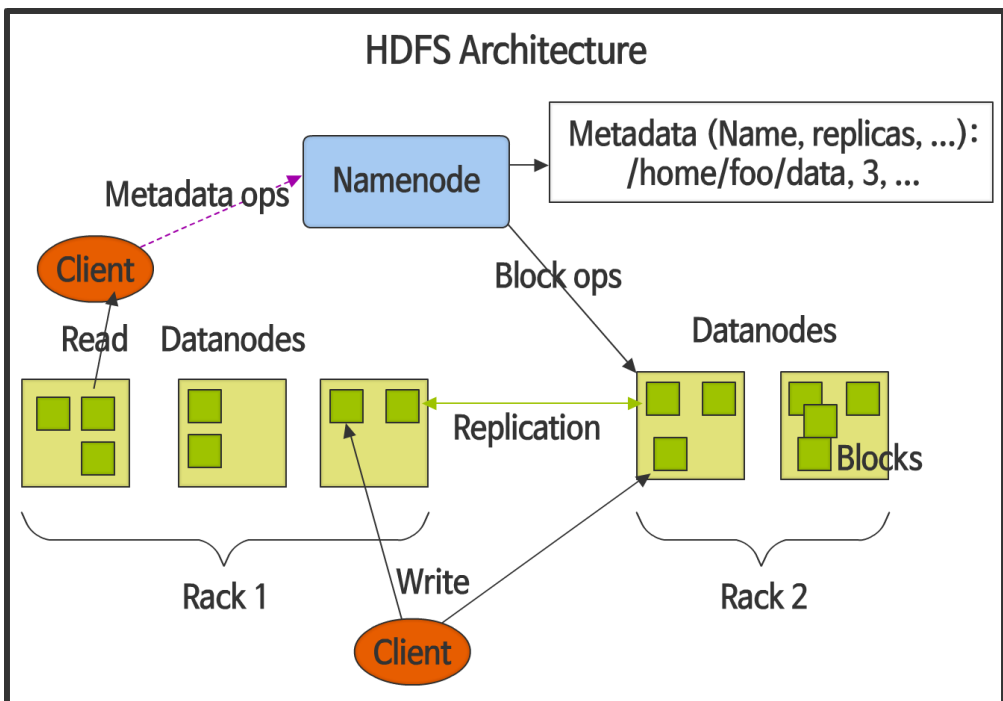
- 스토리지에 파일을 저장하고 관리하는 시스템
- 네이티브 파일 시스템 : OS에서 제공하는 로컬 파일 시스템 FAT32, NTFS, ext3 등
- 확장 파일 시스템 : NFS, GFS(Gluster File System), HDFS(Hadoop Distributed File System) 등으로 네이티브 파일 시스템을 이용해서 구성한 파일 시스템



Persistent Layer

2. Persistent Layer

3) 파일 시스템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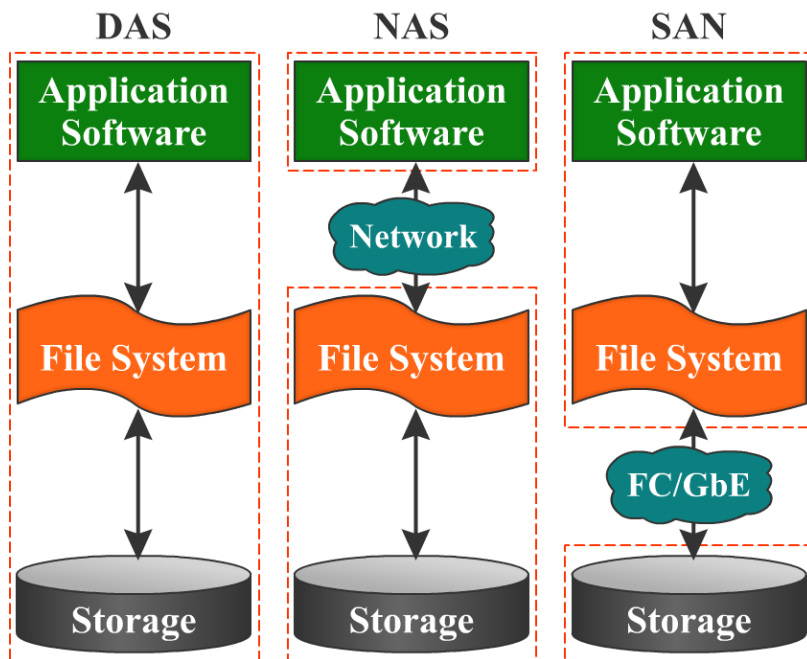
Persistent Layer

2. Persistent Layer

3) 파일 시스템

스토리지 하드웨어

- DAS(Direct Attached Storage) : 외장형 디스크처럼 서버에 직접 부착해서 사용하는 장치
- SAN(Storage Area Network) : 하나의 스토리지를 여러 개의 서버가 공유해서 사용하고, 각 서버는 SAN을 통해 접근
- NFS(Network File System) : 서버의 일정 영역을 다수의 클라이언트가 공유해서 사용하는 파일 시스템





Persistent Layer

2. Persistent Layer

3) 파일 시스템

Object storage

-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스토리지 (Amazon S3, OpenStack SWIFT)
- 기존 파일 I/O API 대신 HTTP/REST를 사용하는 인터페이스 제공
- 파일 시스템 접근 시 OS 제약을 받지 않으며, 대용량 파일 서비스 구조에 적합



Persistent Layer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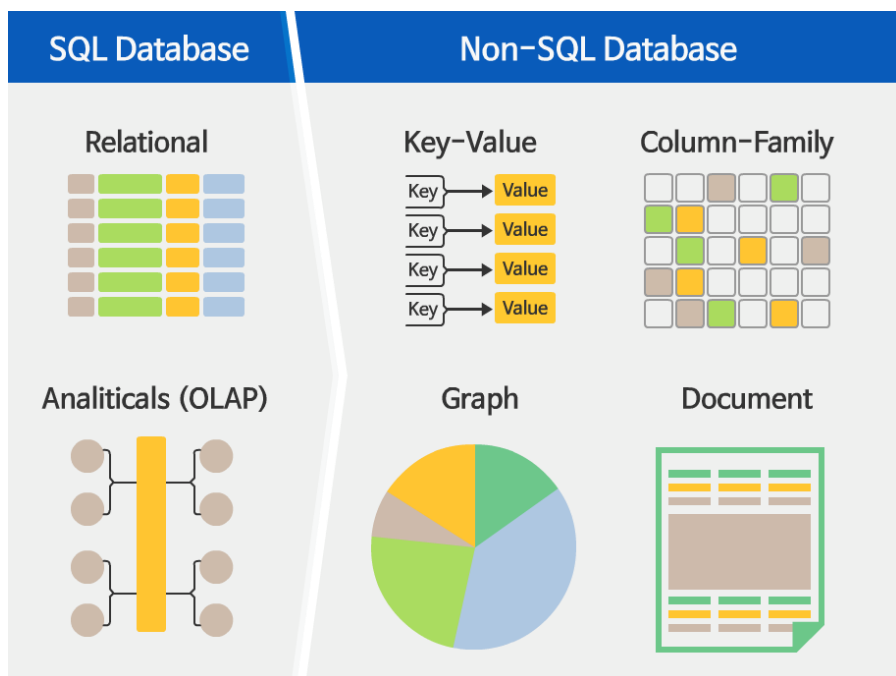
2. Persistent Layer

4) NoSQL

- 근래에 들어 블로그, 페이스북, 트위터 등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요구 사항 변화
 - 빠른 응답 시간
 - 대용량

NoSQL이란?

- 단순한 데이터를 대용량으로 저장할 수 있으며 일반 사용자에게 빠른 성능을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
 - Key-Value 형태의 단순 저장 구조에서 출발
 - Key-value를 확장하거나, 그래프표현을 이용하거나, object를 문서형태로 정리한 모델들도 존재
- 일반적인 시스템 개발에서는 RDBMS로 충분하고, 대용량의 서비스를 빠른 성능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



◆ 핵심정리 ◆

1. Business Layer

- 개요
 - 클라이언트로부터 요청을 받아 데이터베이스나 파일에서 데이터를 쓰거나 읽어 비즈니스 로직에 따라 처리하여 응답을 내보내는 계층
- 동기 요청 처리
 - 일반적인 요청(Request), 응답(Response) 형식의 처리로 응답이 올 때까지 클라이언트가 기다리고 있는 호출 형태
 - Shared Noting 아키텍처 : 분산 처리 시스템을 구성하는 여러 개의 노드가 서로 종속성을 가지지 않고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아키텍처
- 상태 정보 저장소 (메모리 캐쉬)
 - 여러 서버의 메모리를 연결해 수십 기가의 메모리 저장소 만들어놓고 애플리케이션 서버에서 접근해 사용 (메모리 클러스터)
 - 특징 : 고가용성(High Availability), 확장성, 휘발성
- 비동기 요청 처리 (메시지 큐)
 - 요청을 보낸 후 비즈니스 로직이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로직 진행
 - 종류 : RabbitMQ, ZeroMQ, ActiveMQ
 - 패턴 : Fire & Forget 패턴, Publish & Subscribe 패턴, Routing 패턴, Call back 패턴
- 메시징 프로토콜
 - 단순한 텍스트 기반 메시지 포맷을 사용하는 HTTP JSON 기반의 REST 방식을 많이 사용

◆ 핵심정리 ◆

2. Persistent Layer

- 개요
 - 처리할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
- RDBMS
 - 2차원 테이블 형태로 데이터 저장
 - 성능 향상 기법 : Query off Loading, Sharding
 - Query off Loading : Read 와 다른 트랜잭션을 분리해 DB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기법
 - Sharding : 데이터를 여러 개의 데이터베이스에 분산 저장하는 방법
- NoSQL
 - 단순한 데이터를 대용량으로 저장할 수 있으며 일반 사용자에게 빠른 성능을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
- 파일 시스템

